

국민 안전 최우선! 해양수산부, 연안여객선터미널 철저히 점검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점검 -
-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3일(목)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여객선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.

먼저, 강 장관은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운항관리센터에서 설 명절 연휴기간 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듣고 관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.

이어서,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여객선(남신안농협3호)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, 기관설비, 구명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,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. 또한, 여객선 부두 등 접안시설과 대합실의 안전·위생 관리 상태를 살피고 소화장비, CCTV, 비상안내방송 및 피난대피로 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들도 점검했다.

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“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귀성·귀경객들과 여행객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만큼,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,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신재영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훈 (044-200-5733)